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잇단 비리에도 불구하고 …

## 광주·전남인들 마음은 여전히 따뜻

전국 모금액 지난해 7%…광주 250%·전남 115% 늘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연말연시 모금 실적이 크게 저조한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금은 지난 1일부터 시작됐으며 2 일까지 중앙회 총 모금액은 11억 100 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7억 원의 7%에 불과하다. 그러나 광주·전남은 지난해와 비교시 각각 250%, 115% 증가했다.

3일 광주지회에 따르면 '희망 2011 나눔 캠페인'을 시작한 이래 이를 동안 모금액은 1억 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4200만원을 크게 웃도는 실적이며, 이는 기아자동

차에서 일자리감 치 800만원의 기부를 했기 때문이다.

전남지회도 2일까지 4600만원의 모금을 받아 지난해의 4000만원보다 600만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광주지회는 올해 모금 목표를 22 억원으로 책정했으며 전남지회는 51 억 8000만원으로 잡았다. 각각 지난해의 20억 5000만원과 49억 3000만원에 서 1억 5000만원, 2억 5000만원씩 증액된 목표액이다.

광주지회 관계자는 "모금회의 잇단 비리 사건과 관련해 모금액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지역에서 일어난 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 모금액에 큰 변화는 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모금액이 집중되면 목표액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 했다.

하지만 이 지역과 달리 중앙회의 조반 모금 실적은 크게 감소한 주제다. 연중 발생한 잇단 비리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떨어진데다 지난해에는 캠페인 조반 거액을 기부한 기업이 잇따라 데 비해 올해는 기업의 기부 등장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모금액의 큰 감소는 물론, ARS(자동응답서비스, 1통 2000원)를 통한 소액 기부도 이틀간 442만 4000원(2천 212통)이 모여 지난해 같은 기간 4009통(801만 8000원)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현재 '사랑의 온도'도 0.5 도에 그쳐 모금 목표액(2242억원)의 0.5%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중앙회 관계자는 "아직 캠페인 초기라 모금 상황이 어렵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며 "사랑의 온도가 처음에는 다소 느리지만 차츰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모금회의 조반 실적이 좋지 않은 가운데 한 40대 남성이 익명으로 3억원의 고액을 기부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남성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좋은 일에 써달라"는 말만 남긴 채 모금회의 은행 계좌로 3억원을 보냈다. 3억원은 지금까지 모금회에 들어온 익명 기부 중 가장 큰 액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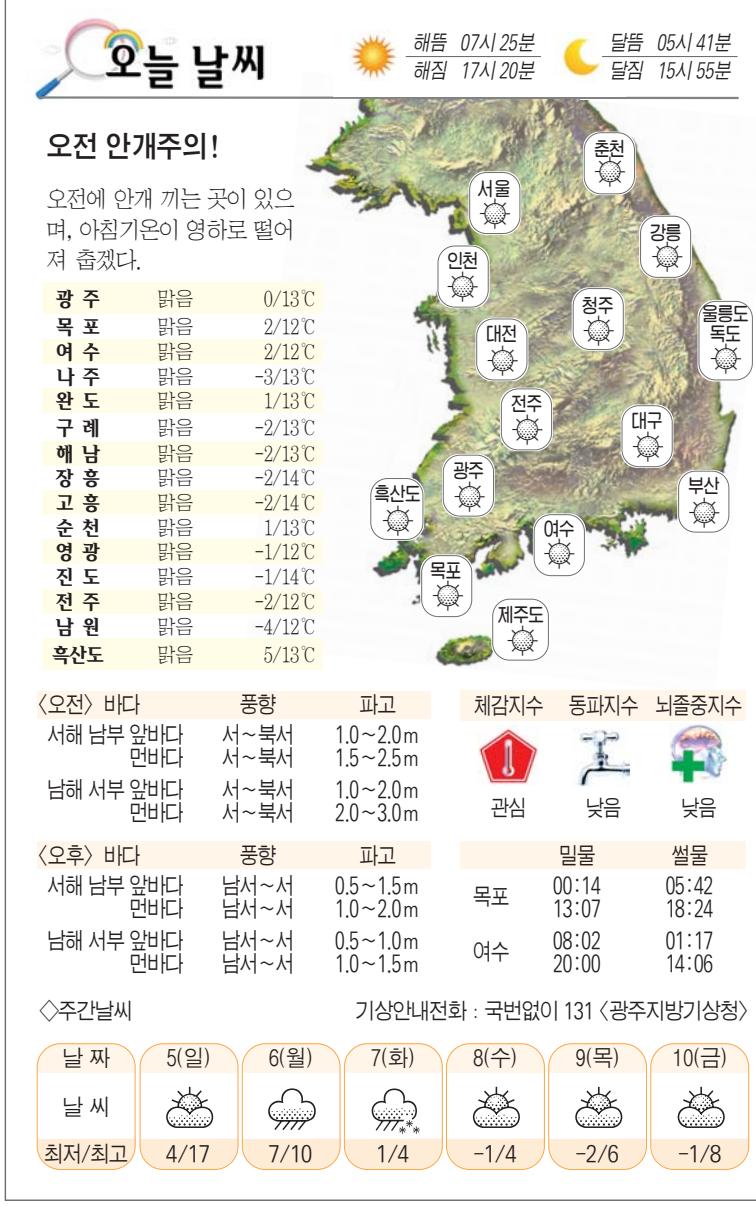
'희망 2011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진행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사랑의 김장 담그기 웃음꽃 '활짝'** 3일 오전 전남농협지역본부(본부장 김용복)는 김장철을 맞아 광주시 서구 치평동 금요직거래장터(SC제일은행 앞)에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열었다. 농협 직원과 농가주부모임 회원 20여명이 전남지역 11개 시·군 복지시설에 전달할 김치 400포기를 담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2500만 고객을 위한 블록버스터 카드  
**Touch 1 카드 출시!**

HanaSK 카드

## 올 겨울 춥고 눈 많이 온다

12월 광주·전남지역은 전형적인 겨울 날씨가 이어져 추운 날이 많겠다. 내년 1월 초에는 기온 변동폭이 크며 광주·전남 전 지역에서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3일 '광주·전남 1 개월 전망'을 통해 "내년 1월 상순까지 한 달간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눈이 높겠다.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평년(1~4도)보다 낮을 것"이라고 예보했다.

12월 중순(11~20일)과 하순(21~31일)에는 전형적인 겨울형 기압배치인 서고동저(西高東低) 형태를 보여 북서계절풍이 강하게 불어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올 가능성이 높겠다.

한재만(광주서구 총무국장)·이돈

남씨 장녀 송이양=4일(토) 낮 12

시 30분 광주서구 삼무리조컨벤션

웨딩홀 1층(아이비홀)

▲ 최재남·이형숙씨 차남 승재

(동신대 교수)군 정용호·임덕이씨

장녀 지(조선대 소아과 전공의)양=

5일(일) 오후 5시 30분 삼무지구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4층 대연회

장.

부음

▲ 박종택(조선대 교수)·장정임(경립교회관사)씨 장남 주현(공학 박사 LG 수석연구원)군 윤종암(광주시청 근무)·박정숙(부암중앙교 회집사)씨 장녀 송원(공무원)양=

4일(토) 오후 1시 광주동명교회 교

육문화관 2층 아트홀

▲ 류연숙(전 조선대교수·유한건

축대표)·박길자씨 장남 민규(건축

사)군 김대자(목사)·장은영씨 자

녀 인(전남과학대학 교수)양=4일

(토) 낮 12시 30분 광주 무등파크

호텔.

▲ 봉태종·신정애씨 삼남 호영근

## 순경 출신이 경무관 됐다

강이순 광산서장 '경찰의 별' 달고 전북청 차장으로

순경 출신 강이순(55·사진) 광주광산경찰서장이 '경찰의 별'인 경무관을 달았다.

순경으로 출발해 경무관까지 오른 케이스는 지난 1999년 이후 처음이며, 역대 광주·전남지역에서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다 승진한 것은 2004년 박현인 전 치안감 이후 두 번째다. 강 서장은 3일 발표된 경찰청 인사에서 전북지방경찰청 차장으로 임명됐다.

광양 출신인 강 차장은 1977년 순경으로 임관한 뒤 1990년 경감, 1997년 경정, 2004년 총경으로 승진했다. 이후 전북경찰청 경무과 부과·정보과·남원경찰서장을 등을 역임했다.

강 차장은 지난해 군산경찰서



장으로 발령받은 지 한 달 만에 경찰관 미용실 여주인 권총 살인 사건으로 직위에

제되는 아픔을 겪었으나 40여일 만에 전북경찰청 홍보담당관으로 다시 보직을 받았고, 지난 6월 인사에서 광주광산서장으로 발령됐다.

강 차장은 업무 성과 면에서 능력이 탁월한 데다 합리적인 일처리로 부하 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해남군수 선거 금품 살포

민주당 당직자 집유 선고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정창호)는 3일 자신이 지지하는 군수 후보의 당선을 두려워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해남지역 민주당 당직자 문모(53)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문씨의 금품제공을 승낙한 박모(62)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0일 같은 당 면회회장 3명에게 300만원씩 준 혐의로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니스 흡입 환각 상태 수업

광주 모 중학생 20명 조사

광주서부경찰은 3일 공예용 니스를 흡입한 뒤 환각상태에서 수업을 받은 광주 모 중학교 1년 김모(13)군 등 중학생 20명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다니는 학교 화장실과 계단 등에서 공예용 니스를 상습적으로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같은 학교 동급생인 이들은 문구점에서 니스를 구입한 뒤 쉬는 시간을 이용해 니스를 흡입하고 환각상태에서 수업을 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고흥 30대 자기차에 깔려 숨져

3일 오전 8시 55분 고흥군 고흥읍 동암리에 사는 류모(31)씨가 집 앞 마늘밭에서 자신의 매그너스 승용차에 깔려 숨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류씨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4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류씨의 승용차 기어는 중립상태였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ju@

CCTV에 찍히는 줄 모르고 돈 흡차

○·자신이 일하는 식당에서 수백만원의 현금을 흡친 종업원이 CC-TV(폐쇄회로) 때문에 범행이 들통.

○·3일 광주부경찰에 따르면 김모(34·동구 계립동)씨는 자신이 일하는 광주시 동구 학동 이모(38)씨의 식당에서 지난 8월 21일 오전 8시 평소보다 빨리 출근, 주인이 없는 틈을 타 카운터에 있던 현금 350만원을 몰래 가져갔다는 것.

○·김씨는 식당 천정에 설치된 CC-TV에 범행 장면이 찍히는 바람에 경찰에 불잡혔는데, 경찰에서 "식당 안에 CC-TV가 설치돼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 경북 안동 4곳서 구제역 추가 발생

임실 한우는 '음성'

경북 안동 지역 4곳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로써 지난 29 일 안동 폐지농가 2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안동 구제역 발생 농가

는 모두 9곳으로 늘어났다.

전북도 출신 한광일 경찰청 의사

국립수산과학연구원에 전달된

정밀 검증 결과로 9곳이

구제역으로 확정됐다.

전북도 출신 한우농가 9곳에서 주

가로 구제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임실군 오수면의 한우농장에

서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이던 한우

두 마리가 구제역이 아닌 것으로 판

정됐다.

전북도는 3일 "축산위생연구소와

국립수산과학연구원에 정밀 진단을

의뢰했으나 검사 결과 모두 구제역 음

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